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탄절 후 제1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9.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새 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총이 너무도 크옵니다. 삶의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우리의 기쁨이었고, 주님의 교훈이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청과 신앙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거둔 생의 열매가 너무 적어 부끄럽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지만, 육체의 관성을 벗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용서한 자의 홀가분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끝없는 용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교 독 문 51. 히브리서11장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김민주 선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31.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함께

성경봉독 I. 옹기 인도자

II. 마18:15-20 윤성종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온전한 이 이성운 전도사

II. 오늘, 용서하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 | |
|-------------------|--------------------------|-----|
| 찬 송 |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함께 |
| 봉 헌 | | 다함께 |
|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 ♠ 봉헌 및 목회기도 | | 인도자 |
| 공동체 소식 |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 다함께 |
| ♠ 보냄의 말씀 | |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이웃이 부를 때 언제든지 달려가 도와줄 수 있도록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 살겠습니다. 욕심과 허영심은 내려놓고, 감사와 겸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늘 창조의 첫 새벽처럼 늘 신선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 | | |
|----------------|--------------------|------|
|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 ♠ 축 복 | | 담임목사 |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신약성서 맥잡기/김기석 목사 | 1월 기도의 밤 |
| 기도 : 김근종 권사 | 인도 : 김재흥 목사 |

| | | | |
|-------------------------|-----------|-----------|-------------|
| 다음 주 예 배 위 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김기석 목사 | 방문성 장로 | 김근종 권사 |

| | | | | | | | |
|------------|------|-----|-----|-----|-----|-----|-----|
| 12월 | 영접위원 | 조병무 | 김훈동 | 정원석 | 안정숙 | 유경순 | 김현영 |
| | 헌금위원 | 윤석철 | 홍순구 | 김중수 | 이순정 | 박해경 | 백혜숙 |

누에처럼 비단실을 토해 내는 인생

어린 시절, 나는 누에를 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농사일 틈틈이 뽕잎을 따줍니다. 어린 나도 식구들과 함께 뽕잎을 따지요. 후텁지근한 날에는 뽕나무에 매달려 뽕잎을 따는 일이 지겨웠지만, 누에가 쉴에 올라가 뽕잎을 먹으면서 내는 소리는 무척 듣기 좋아했습니다. 누에가 크면 뽕잎 먹는 소리가 마치 소나기 내리는 소리처럼 서늘했습니다.

마지막 뽕잎을 먹고 큰 누에들이 나무와 짚으로 열기설기 짝 쉴에 올라 하얀 비단실을 뽑아 내어 고치를 지을 때는, 어린 나이에 도 신기해서 그 집 짓는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중에 농업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서도 누에를 쳤습니다. 한번은 누에가 집 짓는 것이 신기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양잠養蠶 선생님이 곁에 둘러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들 신기해? 그럴 것 없어. 너희도 누에처럼 비단실을 토해 내는 인생이 돼야지!”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내 인생살이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누에를 ‘천충天蟲’이라 불렀답니다. 따라서 천충을 먹이는 뽕잎은 ‘천약天藥’이며, 뽕나무는 ‘천목天木’이 되었습니다. 또, 누에를 천잠天蠶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에가 차가운 외기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벌레이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은 열을 뱉어내는 원천으로 태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에를 ‘태양의 사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신성시하는 것은, 옷에 대한 신앙적 감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납지 않은 옷도 마구 내다버리는 이 철없는 낭비의 시대에, 옛 사람들의 옷에 대한 이런 태도는 납득되지 않을 게 뻔합니다. 아무리 누에가 귀한 옷감을 가져다준다고 해도, 오늘날 누가 그 벌레를 ‘태양의 사자’로 여기겠습니까? 옷이 귀해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꿰매어 입던 세대만이 아마도 누에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김질할 것입니다.

누에가 뽑아낸 실로 짠 옷감을 ‘본견本絹’이라 하는데, 진짜 비단이란 의미지요. 뒤에 ‘인조견’이 나왔지만 인조견을 어찌 본견에 비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본건은 인조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나온 내 삶을 반추할 때마다 자주 이 둘에 견주어 보곤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이 인조건이기보다는 ‘본건’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한무릎공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나는 누에의 한 살이[一生]에서 배웁니다. 비단실을 다 짓고 나서 누에는 죽어 고치가 되고 말지요. 서울 거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번데기 말입니다. 예고의 죽음 없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비단실 같은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고의 죽음이라는 것이, 거둠남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삼십 대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자연스레 욕심이 줄어들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재물욕이든 명예욕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욕망도 저절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감합니다.

노욕老慾이란 말도 있지만, 기력이 점차 쇠하는 노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욕망이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 없는 노인은 더욱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의 위기감 때문에 더욱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의 애착을 끊고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의 은총’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신의 은총이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그런 우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그렇게 여긴다면, 신의 은총은 우리의 삶을 나태와 게으름에 떨어지게 하고 말 테니까요. 내가 말하는 신의 은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위대한 요기Yogi인 스와미 라마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부단한 수행에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이때 신의 은총으로 얻은 열매, 곧 비단으로 변모하는 것은 우주가 기뻐할 ‘대아大我’가 되는 일이겠지요. ‘소아’에 집착한 내가 죽고 ‘대아’가 되는 것은, 종교적 구도의 길을 가는 이들이 모두 갈망하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목표에 당도하는 이는 무척 드물지요. 그래서 그것을 신의 은총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진하, <<이 아침 한줌 보석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강가에서

--도종환

강물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를
더 오래 듣고 있어야 했다
강물이 흘러 아래로 가는 뜻을
다 아는 듯 성급하게 전하러 다니기 전에

가르치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게 강물의 힘줄이긴 멈추지 않는 빛깔이긴
오히려 물줄기 만날 때마다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했다

흘러가며 반짝이는 풀과 꽃들 만날 때마다
꽃으로 열매로 올라가려 기를 쓰지 말고
뿌리 쪽으로 소리없이 내려가야 했다
어디서 이 실패는 비롯되었는가 골똘해지기 전에

조금 고였다 싶으면 서둘러 바다로
이끌고 가려 한 건 잘못이었다
고여 넘쳐 저절로 흐름을 찾아갈 때까지
한사리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흥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 |
|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 | |
|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 | |
| 지휘 : 윤주원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 |
|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강인식 식박영 정경숙 김박권 종옥영 김박희 김창원 김지훈 수영민 박규석 이선림 김희양 김홍주 정박희 김원영 김성현 김수영 박효선 안홍숙 오진민 오홍수 오노조 오문규 오병조 오선영 오송

월정헌금:

김정애 김현영 정원석 김승현 김수진 김극박 박범희 이기분 박찬정 송암회 김윤주 최원선 이봉배 이해동 이성범 김순자 이은자 이경남 이소순 최윤희

감사헌금:

김희우 강인식 김정숙 한상의 정영선 윤석철 장혜숙 장성호 박지인 김용진 박효선 김애경 김정섭 오정숙 김학근 윤수정 유준우 박규석 박경선 김명순 권명자 무명4

캠보디아 우물헌금: 류준모 심호선 김명순

100주년 기념헌금 : 박창운 허정윤 이선림 윤미경 배근수 김금순 무명1 (100주년 헌금 누계: 139,020,000원)

◇ 속 회 보 고 ◇

| 속 명 | 인 도 자 | 속 장 | 모 인 곳 | 다음 장소 |
|------|-------|-----|-------|-------|
| 예루살렘 | 장혜숙 | 장혜숙 | 심 | 심 |
| 베들레헴 | 노순옥 | 정경례 | | |
| 안디옥 | 임정자 | 이춘희 | | |
| 가나안 | 문영혜 | 박경선 | | |
| 갈릴리 | 안정숙 | 박애순 | | |
| 베다니 | 박홍재 | 곽권희 | | |
| 시온 | 박효선 | 허정윤 | | |
| 엠마오 | 최숙화 | 권미정 | | |
| 에베소 | 이순정 | 김금순 | | |
| 빌립보 | 이형숙 | 권미숙 | | |
| 가버나움 | 안홍숙 | 오현정 | | |
| 나사렛 | 백혜숙 | 정옥영 | | |
| 갈라디아 | 송양진 | 유경순 | | |
| 고린도 | 이영란 | 이증자 | | |
| 다메섹 | 박혜경 | 최영혜 | |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송년주일** : 마침내 일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 **새교우 환영회** : 올해 하반기에 우리 교회 새 교우가 되신 분들을 환영하는 모임이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월) 밤 11시부터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4. **기도의 밤** : 1월 2일(수)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기도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일년이 가지런해 집니다.
5.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6. **변경** : 새해부터 헌금은 헌금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감사의 내용은 계속해서 적으십시오.
7. **신년주일** :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로 1,2부 연합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8. **신앙실천** : 지난 한 해를 감사의 체로 걸려 버릴 것을 버리고, 꼭 붙잡을 것은 꼭 붙잡아 내실을 기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토요봉사(5): 구성실 김진경

* 설거지 봉사 : 윤석철 강지은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김희우 홍지희 김철주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아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치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